

큰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임혜원(진천교회)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교구 진천교회 임혜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활동했던 교회 활동 중에 가장 만족했던 시간이고 크게 여운이 남아있는 고3, 14일 수련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3, 14일 수련회를 통해 저의 그 동안의 행동과 생각들을 반성하게 되었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감사함과 죄송한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구 대부분의 성화학생들이 소극적인 면이 있는 학생이 많고 끼리끼리 활동하는 무리들이 많아서 어울리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모여서 하는 수련회에 참석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이에 포함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이는 수련회에 가는 것에 크게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한번이라도 가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감정에 휩쓸릴 것 같아서 이를 극복하고자 고3, 14일 수련회에 지원했습니다. 진천교회에서는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서 신청을 하였고 혼자라는 걱정 때문에 불안감이 점점 더 올라갔었습니다.

12월 29일 개회식 때까지도 저는 위낙 낫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조용히 지내려다가 저와 같이 혼자 있는 친구를 발견하였고 저는 그 친구와 그래도 친해지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착하고 귀여운 아이였고 많은 대화를 통해 친구가 되었습니다. 고3, 14일 수련회는 조끼리 활동을 합니다. 제 4조였는데 함께 활동하면서 4조 성화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해서 어렵지 않게 친구가 되었고 웃음 가득한 추억들을 많이 쌓아갔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충북교구 성화학생들과는 다른 분위기였고 다른 교구 성화학생들과 친구가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적극적이고 활발한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모습을 충북 성화학생들에게 보여주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충북 성화학생들도 다른 교구 친구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성화학생과 어울리고 하나가 되어있는 교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힘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련하는 기간 속에서도 또 다른 특별한 수련을 받았습니다. 12월 31일 신통일한국시대 개문 범국민 기도회에 성화학생 성가대로 활동해야하기 때문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참여머니를 가까이에서 보니 참으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기도회 때 마음속 깊이 남은 것은 참여머님 말씀이었습니다. 참여머님께서 이제 비전 2020을 향하는데 1년밖에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머님께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실 것이라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통일식구들이 함께 해야만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었고 제가 참여머님을 도와 비전 2020을 세울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2020을 위해 저는 카프에 들어가서 말씀 공부를 하고 많은 수련을 받고 전도 활동을 하여 참여머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

달성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대에서 많은 통일교 목회자님께서 무대에 서서 장시간 동안 서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데 한분 한분의 기도에서 간절함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3수련 안에서 축복교육, 원리강의, 참부모님 생애노정, 통일교육 등 많은 교육들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않았고 들으려고 노력도 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참어머님의 말씀을 들었던 저는 저의 약속들을 실천하고자 저만의 공책을 꺼내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필기를 하고 궁금한 것은 직접 물어보아 차근차근 이해하였습니다. 축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되고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축복교육을 통해 축복에 관해 관심이 없었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20살이 되고 축복에 대해 자세하게 들으면서 축복에 대해 더 알아가야 할 필요성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리강의와 참부모님 생애노정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원리강의를 전편, 후편을 들으면서 아담과 해와의 창조목적으로부터 타락으로 인해 복귀섭리를 하기 위한 노정을 많은 중심인물들이 실제기대와 믿음의 기대를 세우려고 해도 실패하여 연속된 타락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야 아브라함이 실제기대와 믿음의 기대를 세운다는 내용과 그럼에도 메시아가 사명을 이루지 못했던 내용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후 새로운 메시아인 참부모님이 등장하신다는 내용을 듣고 참부모님 생애노정에 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어린 나이에 메시아로서 사명을 받들고 참어머님과 함께 복귀섭리와 승리 노정을 걸으시고 진리 사명과 참가정운동과 평화운동을 지금까지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에 정말로 존경스럽고 정성들이는 것조차 힘들어 하고 있는 저를 채찍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부모님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일어서고 우리를 위해 엄청난 힘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고3 수련은 그밖에도 천정궁 탐방을 가고 조원끼리 UCC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천정궁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천정궁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같은 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 천상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정궁 입구에 들어가는데 위에 천정궁의 '정'의 한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참아버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누구나 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일부로 적으셨다고 했습니다. 참아버님이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줌에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건축물과는 색다른 궁의 구조와 참부모님이 사용하시던 공간과 물건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갔습니다. 마지막에 참부모님께서 웃으시며 함께 있는 사진들을 보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꽃이 피어나왔고 행복한 모습에 좋은 기운을 얻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조원과도 UCC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본의 공익광고를 모티브로 해서 '참부모님 앞에 최고가 되자'라는 주제로 해서 자투리 시간마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촬영하였습니다. 저는 신앙에서 최고를 넘어 사회에서도 최고가 되어 참부모님께 효정해 드리는 참자녀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다짐을 했고 그러한 심정으로 활동에 임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화학생들과 기도회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참부모님의 심정을 뒤늦게 알아버린 것과 친구들에

게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그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 효정해드리지 않고 받기만 하고 있었던 저는 참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고 많은 정성을 들여 우리가 참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어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의 잘못된 태도를 알게 해주고 참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3, 14일 수련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면 카프에 들어가서 많은 말씀 공부와 꾸준히 전도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충북 지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즐겁고 행복한 형제 분위기를 만들고 저의 심정을 공유하여 함께 효정해드리는 참자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후배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것과 배운 것들을 가르쳐주어 후배들 또한 참부모님의 심정을 잘 아는 효자 효녀가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이루어드리도록 도와주는 돌다리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